

碩士學位論文

어머니의 養育態度和
兒童의 攻擊性 類型과의 關係

指導教授 高明奎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張志順

1999年8月

<國文抄錄>

어머니의 養育態도와 兒童의 攻擊性 類型과의 關係*

張 志 順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指導教授 高明奎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 학년별, 지역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2-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 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 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720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최종적으로 70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 전산 처리하였다.

본 연구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는 어머니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고, 통제적으로 지각하면 언어적 공격성이 높다. 비성취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고,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다.

여아는 어머니를 적대적, 비성취적으로 지각하면 우회적 공격성이 높고,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다.

둘째, 4학년 아동들은 어머니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면 언어적 공격성이 높고, 비성취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다.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다.

5학년 아동들은 어머니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고, 비성취적으로 지각하면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잠

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다.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다.

6학년 아동들은 어머니를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이 높다.

셋째, 제주시 아동들은 어머니를 적대적, 통제적, 비성취적으로 지각하면 우회적 공격성이 높고,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다.

서귀포시 아동들은 어머니를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다.

북제주군 아동들은 어머니를 비성취적,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이 높다.

남제주군 아동들은 어머니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고, 통제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이 높다. 비성취적으로 지각하면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고,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다.

위의 연구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달리 요구된다.

남아, 여아 모두에게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요구되며 특히 남아는 어머니를 통제적으로 지각할 때 공격성이 높아짐을 볼 때에 남아에게는 자율적인 양육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학년별에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달리 요구된다. 4, 5, 6학년 아동에게 공통적으로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요구된다. 특히, 4학년 아동에게는 자율적, 성취적 양육태도가 요구되며, 5학년 아동에게는 애정적, 성취적 양육태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양육태도는 비합리임을 볼 때에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요구된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아동이 어머니를 적대적, 통제적, 비성취적으로 지각하면 공격성이 높음을 볼 때에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양육태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통계치는 알려주고 있다.

目 次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와 가설	3
3.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어머니의 양육태도	6
2. 공격성의 발달	11
3. 양육태도와 공격성과의 관계	22
III. 연구방법	25
1. 연구대상	25
2. 측정도구	25
3. 자료처리	29
IV. 결과 및 해석	31
V. 요약·결론 및 제언	50
1. 요약	50
2. 결론	53
3. 제언	55
참고문헌	56
Abstract	63
부록	69

< 표 목 차 >

<표Ⅱ-1> 학자에 따른 양육태도 분류	10
<표Ⅱ-2> Buss와 Durkee의 공격성 유형	17
<표Ⅱ-3> Moyer의 공격성 유형	18
<표Ⅱ-4> Frodi, Macaulay and Thome의 공격성 유형	18
<표Ⅱ-5> Kauffman의 공격성 유형	19
<표Ⅱ-6> Lesser의 공격성 유형	19
<표Ⅲ-1> 대상자별 구분	25
<표Ⅲ-2> 어머니 양육태도 지각검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27
<표Ⅲ-3> 어머니 양육태도의 하위영역별 점수	28
<표Ⅲ-4> 공격성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29
<표Ⅳ-1> 애정-적대와 성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31
<표Ⅳ-2> 자율-통제와 성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33
<표Ⅳ-3> 성취-비성취와 성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34
<표Ⅳ-4> 합리-비합리와 성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35
<표Ⅳ-5> 애정-적대와 학년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37
<표Ⅳ-6> 자율-통제와 학년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38
<표Ⅳ-7> 성취-비성취와 학년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39
<표Ⅳ-8> 합리-비합리와 학년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41
<표Ⅳ-9> 애정-적대와 지역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43
<표Ⅳ-10> 자율-통제와 지역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45
<표Ⅳ-11> 성취-비성취와 지역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46
<표Ⅳ-12> 합리-비합리와 지역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48

[그림 목 차]

[그림 Ⅱ-1] Schaefer의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가설적 모형	8
[그림 Ⅱ-2] Dollard et al.의 욕구좌절-공격성 경로	13
[그림 Ⅱ-3] Berkowitz의 좌절-공격가설의 개정	1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나라의 기둥이요 희망인 청소년들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은 가정과 사회, 국가의 소망이다.

현대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여 국제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범죄 및 폭력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1990년대 말 현재 제주도 청소년 범죄율은 전국 평균치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 중 학생 범죄가 72.2%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치만 보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은희, 1997). 그리고 요즘 학교 주변의 폭력만 보더라도 청소년 비행은 날로 흉포화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와 폭력을 유발시키는 심리적 특성인 공격성은 지속적인 특징을 지닌다. 많은 연구자들은 유아기의 공격성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쳐 반사회적 행동을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많은 아동에게 나타나는 공격성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다.

Herson, Berger, Shaffer(1978)는 현재의 공격적인 행동은 어느 정도 미래의 공격적 행동을 예견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으며, Olweus(1980)는 남성에게 있어서 공격성은 아주 지속적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청년기나 성인기의 공격행위나 범죄행위는 아동기의 공격행동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기본적 특성으로서 공격성에 가까운 행동은 후에 확실한 공격행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충돌

이 습관적인 형태로 발전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박덕규, 1986).

공격성은 다른 성격 특성과 마찬가지로 그 원인과 과정은 두 가지 요인 즉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산물인 것이다. 경제적 빈곤, 사회구조적 원인, 공격적 모델을 제공해 주는 TV, 영화, 만화, 신문 등의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부모의 가치관 및 양육태도를 비롯한 과정적 요인들이 공격성 형성 및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런데 아동기의 공격성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최초로 접하는 교육의 장인 동시에 제1차적 성격 형성의 장인 가정환경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중에서도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된 가족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모의 배척, 과보호, 부모의 불화, 체벌, 소리 지르기, 위협, 강압적인 명령 등이 아동의 공격성을 높이며, 가정에서의 사회화 과정이 좌절을 일으키는 것일수록 아동의 공격적인 동기화의 강도가 커진다.

Eron 외(1963)는 부모의 신체적 벌, 거부, 무관심 및 자녀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자녀로 하여금 공격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김무길(1980)은 취학전에서 초등학교까지 직접적 공격성은 감소하고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공격성의 표현은 증가한다고 하였다. 즉, 신체적 공격, 파괴, 분노의 폭발 등은 줄어들고 다른 아동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등의 수동적 공격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 유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격성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여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아동은 언어적, 간접적 공격성도 많이 보인다.

홍강의와 홍경자(1986)는 국내 신문에 발표한 초등학교생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 행동 연구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아동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성 있는 행동 유형은 타인과의 시비, 말다툼, 파괴적 충동 등 반사회적인 공격성인 것으로 집계하였다.

공격성을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 지은 국내 연구는 (이현순, 1982 ;김선옥, 1985 ; 장미도, 1986 ; 송창윤, 1987 ; 박창한, 1992)등이 있다.

한종혜(1980)는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부모의 인성은 양육태도 및 자녀의 인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만을 관련시켜 수행하였기 때문에 양육태도와 공격성 유형과의 상관 관계를 상세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 학년별, 지역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아동의 공격성을 줄이거나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2. 연구 문제와 가설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대상은 연구자가 살고 있는 제주지역 3개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으나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로 국한시켜 조사, 분석 되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면접법이나 관찰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병용해야 했으나 질문지법에 한해서 연구자료가 분석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여기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공격성 발달에 관해 먼저 살펴본 후에 양육태도와 공격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린이가 생후 첫 번째로 접하게 되는 것이 가족이며, 그 중심은 부모이다. 그리고, 영아기, 유아기의 대부분을 가족집단 속에서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은 아동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강하고 끈질긴 영향을 주는 집단이며 동시에 이 영향은 성인 생활에까지도 계속된다(이연섭 외, 1980).

가정은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최초로 참가하는 집단으로 부모는 교육자, 자녀는 피교육자, 그리고 집은 최초의 교육의 장으로서 의미있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자관계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가지며, 친자관계는 자녀의 교육 또는 사회화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모자관계는 단순히 낳아 주고 태어났다는 생리적, 생물학적 관계만이 아니라 심신 양면의 절대적인 양육과 보호, 의존 과정을 통해서 깊은 정신적 유대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인간의 형성 과정은 유전적 요소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환경 중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혈연으로 맺어진 일차적인 집단이다.

인간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환경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강한 환경은 가정환경이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가정환경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초기 환경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 발달에 있어서 가장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오영미, 1997).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내현적 행동 및 특성이다(남상인, 1983).

이러한 양육태도의 중요성은 Freud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이제 여러 학자들과 관심있는 부모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졌다. 최근에는 아동이 주변 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보고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즉, 부모 자신의 보고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논의되고 있다(이숙,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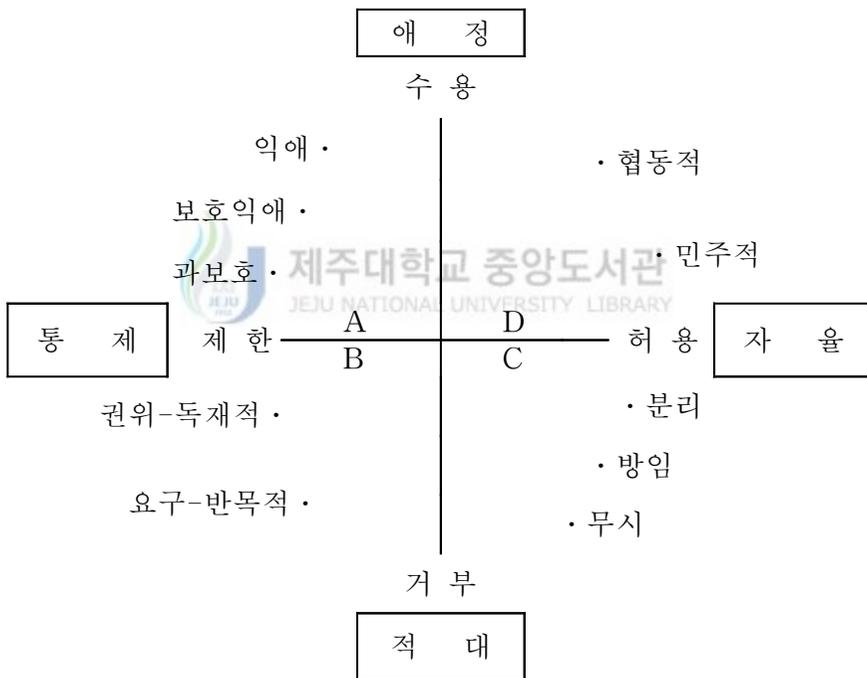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Symonds(1949)로서 부모-자녀의 관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을 양극으로 하는 두 요인 축에 의해 2개 차원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2개 차원을 다시 수용에는 간섭형과 불안형, 거부에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 지배에는 기대형과 엄격형, 복종에는 복종형과 익애형의 하위 형태로 분류 하였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하여 임상사례에 의존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설명되었고, 건전한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정상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양육태도를 설명하는데는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원영, 1983).

Baldwin(1955)은 부모 행동의 평정척도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가정의 분위기를 민주적, 전체적, 익애적, 거부적 가정으로 유형화하였다.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하여 Symonds와는 다른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에 이르

는 30여 년 동안의 장기적인 연구 기록에 의거 부모의 양육태도를 <그림 II-1>과 같이 애정-적대, 자율-통제를 양극으로 하는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하였다(윤정애, 1995).

Schaefer(1959)의 양육태도에 관한 가설적 원형 모형은 자녀양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변인들 중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 있는 요인과 서로 대립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각 변인의 위치를 원형상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1]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가설적 모형(Schaefer, 1959)

위의 그림 <그림 II-1>에서 볼 수 있듯이 애정-자율 사이의 양육 형태와 적대-통제 사이의 양육형태는 각각 민주형과 독재(권위)형으로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애정-통제 사이의 양육형태와 적대-자율 사이의 양육형태는 각각 익애 형과 방임형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오성심과 이종승, 1982).

정신 건강에 좋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D영역이고, A, B, C영역은 우울증과 기타 정신장애를 가져온다.

Elder(1962)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전제형, 권위주의형, 민주형, 평등형, 무시형으로 구분했으며, Roe와 Siegrlman(1963)은 자녀의 양육태도에 관한 아동의 보고서를 요인 분석하여 애정 대 거부, 방임 대 요구, 관심 대 무관심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Becker(1964)는 부모의 행동을 최소한 3개의 일반적 차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Schaefer(1959)의 자율 대 통제 차원을 제약 대 허용, 지나친 관심 대 침착한 방관, 온정 대 적대의 3개 차원으로 분류했다.

Armentrout와 Burger(1972)는 Schaefer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수용 대 거부, 심리적 자율 대 심리적 통제, 엄격한 통제 대 느슨한 통제의 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 오기선(1965)은 “아버지와 자녀 진단 검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 태도, 지배적 태도, 보호적 태도, 복종적 태도, 모순 불일치적 태도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차재호와 이예영(1974)은 요인 분석을 통하여 양육 태도 유형을 온정-냉정, 과보호-방임, 허용-제약, 안달-태평의 4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정원식(1975)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을 수용-거부, 자율-통제,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Hebb와 Bernstein의 이론에 기초를 둔 분류 중에서 합리-비합리적 차원을 포함하여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차원으로 분류하였다(임선화, 1987. 재인용).

이원영(1983)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정서적-자율적 태도, 애정적-통제적 태도, 거부적-자율적 태도, 거부적-통제적 태도로 구분하였으며, 김성태(1984)는 부모의 태도 모형을 온정적·제약적 부모, 적대적·권위적 부모, 적대적·무시적 부

모로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자에 따른 양육태도의 분류를 표로 나타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학자에 따른 양육태도 분류

학 자	양육태도 분류
Symonds(1949)	수용적, 거부적, 지배적, 복종적
Baldwin(1955)	민주적, 전제적, 익애적, 거부적
Schaefer(1959)	애정-적대, 자율-통제
Elder(1962)	전제형, 권위주의형, 민주형, 평등형, 무시형
Becker(1964)	제약-허용, 지나친 관심-침착한 방관, 온정-적대
Armentrout와 Burger(1972)	수용 대 거부, 심리적 자율 대 심리적 통제, 엄격한 통제 대 느슨한 통제
오기선(1965)	거부적 태도, 지배적 태도, 보호적 태도, 복종적 태도, 모순 불일치적 태도
정원식(1975)	수용-거부, 자율-통제,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
오성심과 이종승 (1982)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이원영(1983)	정서적-자율적 태도, 애정적-통제적 태도, 거부적-자율적 태도, 거부적-통제적 태도
김성태(1984)	온정적·제약적, 적대적·권위적, 적대적·무시적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은 애정(수용, 온정), 적대(거부), 자율, 지배(통제), 성취, 합리였다.

여러 학자들이 분류한 양육 태도 유형은 용어가 달리 표현되고 있지만 공통점은 부모의 애정과 통제의 정도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haefer(1959)의 모형과 정원식(1975)의 양육태도 유형 및 Hebb와 Bernstein의 이론을 통합하여 우리 나라 아동의 수준에 맞게 만든 오성심과 이종승(1982)의 양육태도 유형 즉,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2. 공격성의 발달

공격성에 관한 정의는 이론적·경험적으로 다양한 면에서 시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객관적이고 명확한 수준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Bandura(1973)는 공격성 정의의 다양함을 “Semantic Jungle”로 묘사하고 있다.

Johnson(1980)은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도 없고, 공격성을 표출하는 유일한 과정도 없다고 결론 짓고 있다. 공격성의 정의는 생태학, 인류학 등 인접학문의 이론적 입장과 개념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공격성에 관한 정의가 심리학 문헌에 250여개 정도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송창윤, 1987).

공격성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Dollard 외(1939)는 “공격성은 정해진 생물에 상해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반응과 계획된 행동”이라고 했으며, Buss(1961)는 공격성을 “다른 유기체에게 유해한 자극을 일으키는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Feshbach(1964)는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공격성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행동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Shaffer(1993)와 Vasta 외(1992)는 “생명체에 대해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Berkowitz는 “공격성이란 타인을 상해할 의도를 가진 목표지향적 반응” 이라고 정의했다(송창윤, 1987.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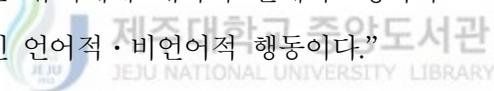
또한, Baron과 Byrne(1984)는 “공격성이란 공격을 피하려는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의도한 행동” 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황응연(1993)은 “공격행위란 다른 사람에게 상해나 불안을 준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행동” 이라고 정의하였다.

Piel(1990)은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신체적 활동이 있을 때 공격적인 것으로, 공격 의도가 있더라도 도움을 위한 수다나 외침과 같은 언어적 수단이 반응 방법으로서 사용되었을 때 비공격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공격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공격성이란 다른 유기체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으로 유해한 자극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이다.”



1) 공격성 발달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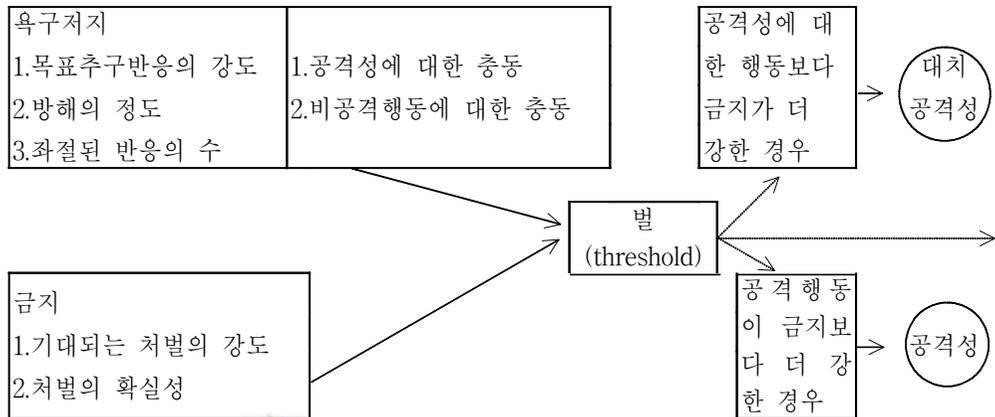
공격성 발달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본능이론, 욕구-좌절이론, 사회적 학습이론, 보상이론, 사회인지이론 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는 욕구-좌절 이론과 사회적 학습 이론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욕구-좌절 이론

욕구-좌절 이론은 Dollard(1939)를 비롯한 Yale 대학의 심리학자와 인류학자들이 “목표지향적 행동을 위협하는 좌절은 항상 공격을 일으킨다” 고 주장한데서 비롯 되었다.

Yale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Frustration and aggression(좌절과 공격)” 이란

저서에서 “공격성은 항상 좌절감의 결과다” 라고 선언했다. 여기에서 좌절감이란 “행동계열상 적절한 때에 충동되는 목표 반응의 유발을 방해 받거나 차단된 상태” 라고 정의했다(Dollard et al, 1939).



[그림 II-2] 욕구좌절-공격성 경로(Dollard et al, 1939)

[그림 II-2] 에서 목표추구 행위에 대한 방해는 공격성에 대한 좌절과 충동을 야기시킨다. 공격성에 대한 좌절과 충동 수준은 목표추구의 강도, 방해의 정도, 방해 받는 목표 추구 반응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공격의 금지는 그 공격 행위에 따를 예상되는 처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금지가 충동보다 강할 때는 다른 상황의 활동이나 다른 목표로 대치되게 된다. 반면에 충동이 더 강해지면 공격충동은 좌절을 일으킨 근본 원인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며 필연적으로 공격성이 발생한다(송창윤, 1987).

좌절이 공격을 유발한다는 이 이론은 항상 일관성 있는 것은 아니다. 욕구-좌절이 일반적으로 공격성을 유발시키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또한 공격은 좌절에 의해서만 유발되지도 않는다.

Davitz(1952)는 실험 연구 결과 “사람들이 좌절에 의해 반드시 공격적으로 반

이와 같이 Berkowitz(1965)에 의하면 공격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공격단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후 Berkowitz(1974)는 극도로 화난 사람이라면 공격단서가 없아도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초기의 입장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Berkowitz(1974)의 이론도 공격적 습관의 발달이나 여러 자극이 어떻게 하여 “공격단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밝히지 않고 있으며, 많은 공격행동이 분노감보다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최순영 외, 1995).

(2) 사회적 학습이론

이 이론에서는 공격성은 관찰, 모방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으며, 강화를 받을수록 더욱 자주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이론에서는 본능, 습득된 동기, 좌절, 분노와 같은 내적인 힘이 공격성을 유발한다고 가정하지만, 사회적 학습이론에서는 “공격성을 하나의 학습된 일종의 사회적 행동”으로 보며 공격에 미치는 인지적 영향을 강조한다.

Bandura는 좌절이나 화와 같은 내적 상태가 공격 행동을 촉진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유발시키는데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한다.(윤완기, 1993. 재인용).

사실상 분노나 좌절이 없이도 공격행동은 일어난다. 가령 사람들은 늘상 바퀴벌레를 찢아 찢어 죽이는데 그 이유는 벌레들이 그들을 화나게 했거나 좌절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해충을 박멸시켜야 한다고 학습했기 때문이다. 사형집행자가 사형수를 죽이는 이유도 그 자신의 개인적 요구보다는 그렇게 해야만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andura에 따르면 공격반응은 관찰이나 직접경험을 통해 습득된다(윤완기, 1993. 재인용).

Bandura, Ross and Ross(1963)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사회적

모델이 공격적 순서를 학습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유아원생에게 장난감을 두고 실갱이하는 TV 프로를 보여 주었을 경우, 이 아동들은 공격적인 TV 프로를 보지 않은 통제집단 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ovaos(1961)는 두 가지 공격행동(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택하여, 인형놀이를 하는 아동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강화하였다. 그 결과 공격행동을 강화 받은 아동은 여러 가지 공격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Slaby와 Crowley(1977)는 유아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언어적 공격을 강화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공격반응을 나타낼 가능성까지도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Davitz(1952)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나 좌절과 같은 부적 정서상태에 대해 비공격적으로 반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아동과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적 영화가 공격 스크립트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도 관찰학습의 효과가 크며, 특히 초등학교 아동보다는 청소년이 공격적 영화를 보았을 때 스스로 공격적 행동을 하려는 생각이 훨씬 더 크게 활성화 된다(곽금주, 1992).

일반적으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현실문제의 장면을 떠나 TV로 이입하여 감정을 해소함으로써 환상적 만족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즉, 갈등이 많을수록 TV를 더 많이 본다고 한다. 욕구-좌절에 빠져 공격을 행사하는 아동은 TV의 폭력 내용을 찾아 기억하려고 하며 동료관계가 만족하지 않으면 TV에서 환상을 찾으려고 한다(이중석, 1991).

김효정(1991)과 윤완기(1993)는 부모가 체벌을 자주할 때 이 체벌은 아동에게 공격적인 모델로 작용하여 더 높은 공격성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였다.

3) 공격성 유형

Mussen, Conger, Kagan(1979)은 공격성을 행동이나 언어를 통하여 외부로 표현되는 행동적 공격성과 외부로 표현되지 않고 Fantasy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재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

황정규(1971)는 공격성을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으로 나누었다. 신체적 공격에는 힘으로 반대를 극복하는 것, 싸우는 것, 부상에 대해 보복하는 것, 대상에게 공격을 가해서 상처를 주거나 죽이는 것,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Buss와 Durkee(1957)는 공격성을 언어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 폭행, 원한, 의심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의를 내리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공격성 유형(출처: Buss와 Durkee, 1957))

공격성 유형	정의
언어적 공격성	언어를 매개로 하여 위협하고 저주하는 것
간접적 공격성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악의있는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
흥분성	쉽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주는 것
부정성	행동하기를 거절하거나 반항하는 것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
폭행	사람에게 행하는 육체적 폭력 행위
원한	실제적 혹은 상상적인 확대로 인해 현실에 갖는 분노의 감정으로 타인을 질투하고 증오하는 것
의심	타인을 믿지 못하며 지나치게 세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적개심을 투사하는 것

언어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 폭행을 합쳐 공격성이라 하고, 원한과 의심을 합쳐 적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적의성은 공격성과 일치될 수도 있지만 공격반응의 일부분으로서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지속적인 태도, 즉 내적

으로 강화된 공격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Moyer는 공격성을 야기시키는 자극 형태에 따라 약탈 공격성, 공포 공격성, 과민 공격성, 모성 공격성, 성공격성, 남성간 공격성, 영토 공격성의 8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표 II-3>과 같이 정의했다(정우혜, 1991. 재인용).

<표 II-3> Moyer의 공격성 유형(출처:정우혜, 1991. 재인용)

공격성 유형	정 의
약탈 공격성	먹이를 차지하려는 동물의 공격성
공포 공격성	공포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불가능할 때 나타나는 공격성
과민 공격성	좌절을 주는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가하게 되는 공격성
모성 공격성	어린 새끼에게 어떤 대상이 접근할 때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공격성
성 공격성	성적인 반응을 유발시키는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공격성
남성간 공격성	대부분의 종에서 낯선 남성의 출현으로 나타나는 공격성
도구 공격성	정적인 강화가 주어지는 상황과 유사할 때는 언제든지 나타나는 공격성
영토 공격성	영토 보존을 위한 욕구에서 오는 공격성

Frodi, Macaulay, and Thome(1977)은 공격성을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으로 나누고 <표 II-4>와 같이 정의하였다.

<표 II-4> 공격성 유형(출처:Frodi, Macaulay, and Thome, 1977)

공격성 유형	정 의
신체적 공격성	공격대상에게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려는 반응
언어적 공격성	상대에게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해를 끼치는 모든 반응
직접적 공격성	화나게 만든 사람 혹은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한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행동
간접적 공격성	공격을 유발한 사람이 아닌 다른 표적에 대한 것이거나, 혹은 구체적인 표적이 아주 없는 공격적인 행동

Kauffman(1981)은 공격성을 표현 방법에 따라 <표 II-5> 와 같이 수동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자기 회피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

<표 II-5> 공격성 유형(출처 : Kauffman, 1981)

공격성 유형	정 의
수동적 공격성	공격성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나 겉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수동적으로 자신의 공격욕구를 표현하는 것(고집, 반대, 꾸물거리기, 거부적 태도, 부정적 반응, 상대방 무시 등)
직접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소리 지르기, 놀리기, 욕하기, 시비걸기, 말다툼하기, 거친 태도로 명령하기, 남을 모욕하기)과 신체적 공격성(위협하기, 발로 차거나 때리기, 물건 던지기, 먹살잡기, 물건 파손 등)으로 나타남
자기회피적 공격성	공격적 행위가 자신에게 가해지는 경우를 말함(자신의 몸을 때리기, 벽에 부딪치기, 물어뜯기 등)



Lesser(1959)는 ‘guess who’ 기법을 이용하여 공격성을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표 II-6>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박창한, 1992. 재인용).

<표 II-6> Lesser(1959)의 공격성 유형(출처:박창한, 1992. 재인용)

공격성 유형	정 의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타인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해 공격하거나 해를 입히기 위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까닭없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해를 입히기 위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폭발형 공격성	타인에게 정해진 것이 아닌 명백한 이유없이 억제하기 어려운 폭발적인 방법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
언어적 공격성	공격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타인에게 언어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반응하는 것
우회적 공격성	타인에게 다른 대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격하거나 해를 끼치기 위해 반응하는 것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에 따라 공격성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Lesser(1959)의 분류는 공격성의 세 가지 요소 즉, 유해한 자극과 의도 및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Lesser(1959)의 공격성 유형을 선택하여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 ①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 상대방으로부터 도전이 있는 경우 신체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
- ②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 아무런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내적으로 공격 반응을 하는 것
- ③ 폭발형 공격성 : 뚜렷한 이유와 대상도 없이 순간적, 폭발적으로 공격반응하는 것
- ④ 언어적 공격성 : 말로써 상대방을 공격 헐박하는 것
- ⑤ 우회적 공격성: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간접적으로 공격 반응하는 것

3) 공격성의 사회·문화적 차이

공격성이 남녀 모두에게 꽤 안정된 속성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다.

Maccoby와 Jacklin(1974)은 공격성의 성차에 관한 100편 이상의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년과 성인 남자가 소녀와 성인 여자에 비해 신체적, 언어적으로 더 공격적이라고 밝혀 냈다. 이러한 성차는 2~2½세부터 나타날 수 있으며, 자연관찰의 맥락에서 더 잘 나타난다(Hyde, 1984).

공격적 갈등은 소년-소녀나 소녀-소녀 관계보다 소년-소녀간에서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Barrett, 1979).

Maccoby와 Jacklin(1980)은 모든 인간사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생물학적 근원설을 주장하는 반면, Tiger(1980)는 공격의 성차를 일으키

는 주요 원인은 성전형화 과정과 사회적 학습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Hartup(1974)은 공격행동의 형태와 공격유발상황이라는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아동기에 나타나는 공격의 정도는 학령전 시기에 걸쳐 증가하다가 4세 경에 그 정점에 이르게 되며 둘째, 2~3세 된 아동은 대개 부모로부터 혼나거나 좌절당했을 때 가장 공격적이며, 그 이후의 아동은 형제자매나 또래아동들과 갈등이 있을 때 훨씬 더 공격적이다. 셋째, 초등학교 아동은 신체적 공격을 점점 덜하는 한편 애먹이고, 비웃고, 고자질하며, 무례하게 욕하며, 좀 더 큰 아동도 적대적 공격의 비율이 더 증가한다고 했다.

Shantz와 Voydanoff(1973)는 7, 9, 12세 소년에게 다른 아동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물어본 연구에서 7세 아동은 그것이 우발적이었던 의도적이었던 매우 공격적인 보복행동을 선호하였으며 9~12세 아동은 의도적인 공격에 대해 훨씬 더 공격적이라고 밝혀냈다.

한 사람의 공격적 경향과 반사회적 행동은 그가 속한 문화가 그러한 행동을 얼마나 권장하고 묵과하는가에 달려있다. 뉴기니아의 아라페쉬족과 중앙아프리카의 피그미족은 수동적이고 비공격적인 사회질서를 이루고 있으며, 우간다의 이크족은 소집단을 이루어 살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훔치고 속이며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한다. 또한 뉴기니아의 Mundugumor족은 어린애들에게 독립적이고, 호전적이며 타인의 욕구에 동정심을 갖지 않도록 가르친다(Mead, 1935).

이상 살펴본 것처럼 아동의 공격성은 성차, 연령차, 지역(문화)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양육태도와 공격성과의 관계

부모는 욕구불만 해소를 통제하기도 하고,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 후에 강화를 하거나 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모의 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의 그러한 행동을 모방하게 하는 모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동의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와 공격성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먼저 외국 연구를 살펴보면 Jenkins(1933)는 범죄소년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거부적인 태도가 범죄행동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는 어린이로 하여금 반사회적이고 비사회적이며 범죄행동과 범죄적인 성격을 낳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다 (장기순, 1994).

Watson(1957)은 따뜻하면서 엄한 태도를 보이는 부모와 따뜻하면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따뜻하면서 엄한 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자녀가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더 많이 투사했다고 보고하였다.

Sears(1957)는 아동이 공격성을 외부로 표현할 때 어머니가 사용하는 체벌과 공격성과의 관계 연구에서 학교에서 공격성을 외부로 많이 표현하는 아동은 어머니가 체벌을 많이 사용한 경우라고 하였다.

Bandura와 Walters(1959)는 부모가 있고 정상적인 가정의 남자 고등학생을 공격적인 학생과 비공격적인 학생으로 나누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공격적인 남학생의 어머니는 남학생이 유아기때 도움을 요구하면 도와주거나 격려해 주지 않고 벌을 주었다고 했으며, 비공격적인 남학생의 어머니는 더 따뜻하고 거부를 하지 않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양육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andura와 Walters(1959)는 다른 연구에서 공격적인 남아의 집단과 비

공격적인 남아의 집단간의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공격적인 집단의 어머니는 비공격적인 집단의 어머니보다 남아에게 요구할 때 일관성이 없고, 남아에게 복종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위의 두 연구에서 보면 부모의 따뜻한 태도는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agan과 Moss(1962)는 어머니의 제한적인 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남아의 경우 0~3세 때는 어머니의 제한적인 태도와 공격성과는 관련이 없으나 3~10세 때에는 어머니의 제한적인 태도가 공격성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여아는 어머니의 제한적인 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Becker(1962)는 교사가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관찰 기록한 것과 어머니의 아동 양육태도에서 나타나는 별과의 관계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머니가 체벌을 많이 사용할수록 남아의 공격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Delaney(1970)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제한적인 태도와 허용적인 태도로 나누어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부모의 허용적인 태도보다 제한적인 태도가 아동의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Feshbach(1970)는 부모의 통제유형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를 종합하여 부모의 체벌과 엄한 태도는 공격성을 유발시키거나 지속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고통스럽고 인격 손상적인 통제를 경험한 아동들은 공격성이 증가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체벌을 사용하는 부모는 공격 방식의 모델로서 기여하며, 둘째, 아동을 신체적으로 벌하는 부모는 공격성의 위력을 아동에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Eron(1982)은 부모가 자녀에게 냉담하고 거부적일 때 자녀는 적대적이며 공격적으로 성장하기 쉽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 정원식(1973)은 어머니의 애정이 결핍되었을 때 자녀는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고 말하고 인간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졌던 모자관계, 그 중에서도 애

정의 결핍 여하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현순(1982)은 어머니의 엄한 체벌 태도는 남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엄한 체벌 태도는 상호작용함으로써 여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박덕규(1983)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모들의 무의식적인 공격행위 요소로서 과잉보호, 엄한 교육, 지나친 청결주의, 겁을 주는 행위, 사랑과 미움이 불분명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어른들의 불투명한 언행, 학대행위 등을 들고 있다.

이원영(1983)은 거부적-자율적 태도를 지닌 부모에게서 성장한 아동은 공격적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며, 거부적-통제적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자아에 대한 분노가 발생하며 내면화된 고통과 갈등을 많이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학적, 퇴행적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김성태(1984)는 적대적·무시적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대체로 비행아가 많으며, 공격적이고 감정을 발산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밝혀냈다.

김효정(1991)과 윤완기(1993)는 “부모의 체벌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라는 연구에서 부모가 체벌할 때 이 체벌은 공격적인 모델을 제공하여 공격성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조사방법과 대상, 문화권 등이 다르긴 하지만 부모가 아동의 욕구를 좌절시키거나 공격 모델을 제공하는 양육태도는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 학년별, 지역별에 따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 학년별, 지역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구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Ⅲ. 연구 방법

여기서는 연구대상과 측정도구 및 자료처리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720명을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처음에 설문지 720부를 배부하였으나 편부 아동, 잘못 기재된 것, 누락된 것을 제외한 706부만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대상자별 구분

변인	성별		학년별			지역별				계
	남	여	4학년	5학년	6학년	제주	서귀	북군	남군	
응답자 (%)	359 (50.8)	347 (49.2)	231 (32.7)	237 (33.6)	238 (33.7)	178 (25.2)	179 (25.4)	175 (24.8)	174 (24.6)	706 (100.0)

대상자 선정은 연구자가 성별, 지역별, 학교급별로 임의 표집하였다. 검사실시는 학급 담임 교사에게 실시요령을 주의깊게 전달한 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설문지와 공격성 설문지를 동일 대상에게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첫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설문지와 둘째, 공격성 설문지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질문지를 채택하였다. 이 검사는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모 양육태도의 각 차원은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극화 되어있다. 부모 양육태도의 각 차원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애정-적대

애 정	적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적이며 헌신적이다. •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 상담이나 칭찬, 격려 등을 아끼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일에 무관심하며 소홀한 편이다. • 자녀를 위한 시간을 별로 내주지 않는다. • 비난 및 체벌을 자주 가하고 자녀의 단점을 강조한다.

② 자율-통제

자 율	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개성 및 의견과 권리를 존중한다. • 지나친 감독과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 자녀 스스로의 생각과 처리 및 책임지는 습관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고 전체적인 편이다. • 엄격하고 많은 제한을 둔다. • 설명이나 이유보다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③ 성취-비성취

성취	비성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포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기를 격려한다. • 부지런히 활동하기를 격려한다. • 끈기있게 집중하여 일을 해내도록 기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 맡은 일에 대한 책임완수의 여부에 무관심하다. • 새로운 일이나 경험 및 호기심에 대한 요구에 비협조적이다.

④ 합리-비합리

합리	비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에게 일의 동기와 근거의 제시를 요구한다. • 교육에 있어서 이성적인 편이다. • 매사에 이유를 중요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일의 동기나 과정 보다는 결과만을 우선 따지는 편이다. • 교육에 있어서 그때 그때의 감정에 치우치는 편이다.

각 4개 차원에 포함된 문항 구성 내용과 신뢰도를 제시하면 아래 <표 III-2>와 같다.(내용은 부록 참조).

<표 III-2> 어머니 양육태도 지각검사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차원	문항 번호	문항수	비고	신뢰도 (Cronbach계수)
애정 - 적대	1, 5, 9, 13, 17, 21, 25, 29, 33, 37	10	5, 13, 21, 25번 역산 처리	.61
자율 - 통제	2, 6, 10, 14, 18, 22, 26, 30, 34, 38	10	7, 18, 22, 26, 34번 역산 처리	.52
성취 -비성취	3, 7, 11, 15, 19, 23, 27, 31, 35, 39	10	7, 31, 35번 역산 처리	.63
합리 - 비합리	4, 8, 12, 16, 20, 24, 28, 32, 36, 40	10	4, 12, 20, 28, 32, 36번 역산 처리	.66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onbach계수에 의한 어머니 양육태도 지각검사의 신뢰도는 .52 ~.66까지로 모든 차원이 대체로 만족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측정도구로서 적합한 도구임이 증명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 영역별 점수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영역별 점수

양육태도	통계치	N	\bar{X}	SD
애정-적대		677	7.94	1.72
자율-통제		674	6.98	1.48
성취-비성취		678	7.10	1.71
합리-비합리		673	7.52	1.98

2) 공격성 검사

아동의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황정규(1964)의 욕구진단 검사 중 공격욕구를 측정하는 12문항과 윤진란(1994)의 공격성 검사 6문항, 본 연구자가 제작한 12문항을 합하여 총 30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공격성 검사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1998년 9월 10일부터 9월 23일에 걸쳐 연구자가 직접 제주시내 D초등학교 6학년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Cronbach계수가 .65~.90까지로 대체로 만족한 신뢰도를 가지

고 있음이 증명되어 본조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공격성 문항 구성 내용 및 신뢰도 계수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공격성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공격성 유형	측정 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 a계수)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상대방으로부터 도전이 있는 경우 신체적인 공격을 가하는지를 측정	1,6,11, 16,21,26	6	.74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아무런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내적으로 공격반응하는지를 측정	3,8,13, 18,23,28	6	.72
폭발형 공격성	뚜렷한 이유와 대상도 없이 순간적, 폭발적으로 공격반응하는지를 측정	2,7,12, 17,22,27	6	.65
언어적 공격성	말로써 상대방을 공격 협박하는지를 측정	4,9,14, 19,24,29	6	.74
우회적 공격성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간접적으로 공격 반응하는지를 측정	5,10,15, 20,25,30	6	.65

3. 자료 처리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지는 40문항으로 각 문항에 ‘그렇다’ 와 ‘아니다’ 의 양자 택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은 ‘그렇다’ 에는 ①, ‘아니다’ 에는 ②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양육태도의 척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진술문의 경우는 ‘그렇다’ 에 1점, ‘아니다’ 에 0점을 주었으며, 부정적인 진술문의 경우는 ‘그렇다’ 에 0점, ‘아니다’ 에

1점을 주었다. 이 점수를 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긍정집단과 부정집단의 구분은 상위 33.3%의 사례는 긍정집단으로, 하위 33.3%의 사례는 부정집단으로, 중간 33.3%의 사례는 비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중간집단은 애정-적대적 집단의 경우는 속하는 사례가 없었으며, 자율-통제적 집단의 경우는 26.6%, 성취-비성취 집단과 합리-비합리 집단의 경우는 전체의 20.1%였다.

공격성 검사지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아주 그렇다’는 ①, ‘그런 편이다’는 ②, ‘그저 그렇다’는 ③, ‘그렇지 않다’는 ④, ‘전혀 그렇지 않다’는 ⑤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①은 5점, ②는 4점, ③은 3점, ④는 2점, ⑤는 1점을 주어 채점하였다. 이 점수를 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성별, 학년별, 지역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t검증을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 : $p < .05$, ** : $p < .01$ 에서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료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가설1 :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의 차이(성별)

가설1-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성별에 따른 공격성 유형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표 IV-1> 애정-적대와 성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공격성 유형	양육태도	애정		적대		t
		N	$\bar{X}(SD)$	N	$\bar{X}(SD)$	
도발적물리형공격성	남아	129	19.08(5.03)	192	19.24(4.97)	-0.28
	여아	168	18.85(4.75)	160	18.49(5.31)	0.64
잠재적물리형공격성	남아	131	12.21(3.79)	186	13.19(4.21)	-2.12 *
	여아	166	11.25(3.57)	157	11.05(3.72)	0.48
폭발형 공격성	남아	130	15.24(4.50)	197	16.19(4.19)	-1.94
	여아	167	12.92(3.47)	159	12.83(4.07)	0.22
언어적 공격성	남아	128	13.85(4.46)	184	14.88(4.56)	-1.99 *
	여아	162	12.93(3.98)	151	12.62(3.84)	0.71
우회적 공격성	남아	132	14.65(4.23)	198	15.93(4.42)	-2.62 **
	여아	166	15.03(3.97)	159	16.20(4.79)	-2.41 *

(* : $p < .05$, ** : $p < .01$)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인 경우 남아에게 있어서는 애정집단의 평균은 12.21, 적대집단의 평균은 13.19로 의미있는 차이($t=-2.12, p<.05$)를 보이고 있다. 언어적 공격성은 남아에게 있어서 애정집단의 평균은 13.85, 적대집단의 평균은 14.88로 의미있는 차이($t=-1.99, p<.05$)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남아는 어머니를 적대적으로 지각할수록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회적 공격성은 남아인 경우 애정집단의 평균은 14.65, 적대집단의 평균은 15.93으로 의미있는 차이($t=-2.62, p<.01$)를 나타내며, 여아인 경우 애정집단의 평균은 15.03, 적대집단의 평균은 16.20으로 의미있는 차이($t=-2.41, p<.05$)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남아, 여아 모두 어머니를 적대적으로 지각할수록 우회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1-1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가설1-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성별에 따른 공격성 유형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2>와 같다.

<표 IV-2> 자율-통제와 성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공격성 유형	양육태도	자율		통제		t
		N	$\bar{X}(SD)$	N	$\bar{X}(SD)$	
도발적물리형공격성	남아	104	18.64(5.12)	124	19.33(5.09)	-1.02
	여아	146	19.24(5.09)	98	19.24(4.96)	-0.52
잠재적물리형공격성	남아	103	12.25(3.70)	124	13.07(4.20)	-1.54
	여아	145	11.40(3.79)	93	11.87(4.09)	-0.89
폭발형 공격성	남아	106	15.50(3.97)	130	15.73(4.36)	-0.43
	여아	146	13.30(3.92)	99	13.16(3.93)	0.29
언어적 공격성	남아	103	13.43(4.34)	119	14.73(4.60)	2.14 *
	여아	139	13.18(4.10)	89	13.47(4.14)	-0.51
우회적 공격성	남아	110	14.99(4.35)	125	15.76(4.66)	-1.30
	여아	145	15.63(4.41)	96	16.75(4.75)	-1.86

(* : p<.05)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적 공격성의 경우 남아에 있어서 자율 집단의 평균은 13.43, 통제집단의 평균은 14.73으로 의미있는 차이 ($t=2.14, p<.05$)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어머니의 제한적인 태도는 남아의 공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아의 공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Kagan & Moss : 1960) 는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1-2는 극히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가설1-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성별에 따른 공격성 유형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3>과 같다.

<표 IV-3> 성취-비성취와 성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양육태도		성취		비성취		t
		N	$\bar{X}(SD)$	N	$\bar{X}(SD)$	
도발적물리형공격성	남아	135	18.94(4.98)	113	19.84(4.76)	-1.43
	여아	158	18.49(5.03)	111	18.82(4.94)	-0.54
잠재적물리형공격성	남아	136	12.20(3.66)	116	14.12(4.38)	-3.78 **
	여아	155	10.88(3.28)	109	11.52(4.19)	-1.33
폭발형 공격성	남아	140	15.05(4.33)	115	17.03(4.31)	-3.63 **
	여아	159	12.81(3.66)	109	12.77(3.86)	0.09
언어적 공격성	남아	137	14.35(4.16)	107	15.78(4.70)	-2.51 *
	여아	153	12.61(3.92)	105	12.71(4.16)	-0.20
우회적 공격성	남아	139	15.17(4.16)	116	16.61(4.47)	-2.64 **
	여아	157	15.10(4.13)	109	16.33(4.85)	-2.20 *

(* : $p < .05$, ** : $p < .01$)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의 경우 남아에 있어서 성취집단의 평균은 12.20, 비성취집단의 평균은 14.12로 의미있는 차이($t = -3.78$, $p < .01$)를 나타내고 있으며, 폭발형 공격성은 남아에 있어서 성취집단의 평균은 15.05, 비성취집단의 평균은 17.03으로 의미있는 차이($t = -3.63$, $p < .01$)를 나타내고 있다.

언어적 공격성은 남아의 경우 성취집단의 평균은 14.35, 비성취집단의 평균은 15.78로 의미있는 차이($t = -2.51$, $p < .05$)를 나타내고 있다.

즉, 남아는 어머니를 비성취적으로 지각할수록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회적 공격성은 남아의 경우 성취집단의 평균은 15.17, 비성취집단의 평균은 16.61로 의미있는 차이($t = -2.64$, $p < .01$)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아의 경우 성취집단의 평균은 15.10, 비성취집단의 평균은 16.33으로 의미있는 차이($t = -2.20$, $p < .05$)를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를 비성취적으로 지각할수록 남아, 여아 모두 우회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1-3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가설1-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와 성별에 따른 공격성 유형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4>와 같다.

<표 IV-4> 합리-비합리와 성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공격성 유형	양육태도	합리		비합리		t
		N	$\bar{X}(SD)$	N	$\bar{X}(SD)$	
도발적물리형공격성	남아	104	18.92(4.92)	151	20.07(4.88)	-1.85
	여아	142	18.19(4.79)	118	19.55(4.70)	-2.30 *
잠재적물리형공격성	남아	106	11.85(3.62)	146	14.03(4.22)	-4.28 **
	여아	142	10.43(3.09)	117	12.02(4.04)	-3.58 **
폭발형 공격성	남아	110	14.55(3.81)	151	17.00(4.41)	-4.68 **
	여아	141	12.50(3.41)	118	13.75(4.20)	-2.64 **
언어적 공격성	남아	105	13.20(4.32)	144	15.78(4.62)	-4.46 **
	여아	135	12.14(3.57)	113	13.90(3.93)	-3.69 **
우회적 공격성	남아	110	14.38(4.18)	151	16.38(4.46)	-3.67 **
	여아	143	14.77(3.97)	116	16.94(4.70)	-4.03 **

(* : $p < .05$, ** : $p < .01$)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은 여아의 경우 합리집단의 평균은 18.19,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9.55로 유의미한 차이 ($t = -2.30$, $p < .05$)를 나타내고 있다.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은 남아의 경우

합리집단의 평균은 11.85,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4.03으로 의미있는 차이 ($t=-4.28, p<.01$)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아의 경우 합리집단의 평균은 10.43,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2.02로 의미있는 차이($t=-3.58, p<.01$)를 나타내고 있다. 폭발형 공격성은 남아의 경우 합리집단의 평균은 14.55,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7.00으로 의미있는 차이($t=-4.68, p<.01$)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아의 경우도 합리집단의 평균은 12.50,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3.75로 의미있는 차이($t=-2.64, p<.01$)을 나타내고 있다. 언어적 공격성은 남아의 경우 합리집단의 평균은 13.20,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5.78로 의미있는 차이($t=-4.46, p<.01$)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아의 경우도 합리집단의 평균은 12.14,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3.90으로 의미있는 차이($t=-3.69, p<.01$)를 나타내고 있다. 우회적 공격성은 남아의 경우 합리집단의 평균은 14.38,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6.38로 의미있는 차이($t=-3.67, p<.01$)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아의 경우도 합리집단의 평균은 14.77,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6.94로 의미있는 차이($t=-4.03, p<.01$)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1-4는 거의 수용되었다.

2. 가설2 :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의 차이(학년별)

가설2-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학년별에 따른 공격성 유형간의 차

이를 살펴보면 <표 IV-5>와 같다.

<표 IV-5> 애정-적대와 학년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공격성 유형	양육대도	애정		적대		t
		N	$\bar{X}(SD)$	N	$\bar{X}(SD)$	
도발적물리형공격성	4학년	80	18.43(5.13)	124	17.93(5.55)	0.65
	5학년	113	18.88(4.80)	113	19.92(4.61)	-1.65
	6학년	104	19.42(4.73)	115	18.94(5.00)	0.72
잠재적물리형공격성	4학년	80	11.35(3.85)	123	11.52(4.16)	-0.31
	5학년	112	11.45(3.80)	106	12.88(4.23)	-2.63 **
	6학년	105	12.16(3.44)	114	12.33(3.91)	-0.34
폭발형 공격성	4학년	85	13.76(4.65)	127	13.85(4.28)	-0.14
	5학년	110	13.70(3.90)	111	15.43(4.33)	-3.12 **
	6학년	102	14.35(3.86)	118	14.90(4.64)	-0.95
언어적 공격성	4학년	82	12.73(4.58)	115	13.38(4.74)	-0.96
	5학년	107	13.26(4.07)	106	14.54(4.19)	-2.27 *
	6학년	101	13.92(4.01)	114	13.71(4.16)	0.36
우회적 공격성	4학년	84	14.14(3.63)	127	14.85(4.47)	-1.28
	5학년	112	14.85(4.47)	111	16.83(4.44)	-3.32 **
	6학년	102	15.47(3.94)	119	16.61(4.62)	-1.96

(* : $p < .05$, ** : $p < .01$)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의 경우 5학년에 있어서 애정 집단의 평균은 11.45, 적대 집단의 평균은 12.88로 의미있는 차이($t = -2.63$, $p < .01$)를 보이고 있으며, 폭발형 공격성의 경우 5학년에 있어서 애정 집단의 평균은 13.70, 적대 집단의 평균은 15.43으로 의미있는 차이($t = -3.12$, $p < .01$)를 나타내고 있다.

언어적 공격성은 5학년의 경우 애정 집단의 평균은 13.26, 적대 집단의 평균은 14.54로 의미있는 차이($t = -2.27$, $p < .05$)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회적 공격성은 5학년의 경우 애정 집단의 평균은 14.85, 적대 집단의 평균은

16.83으로 의미있는 차이($t=-3.32, p<.01$)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2-1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가설2-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학년별에 따른 공격성 유형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6>과 같다.

<표 IV-6> 자율-통제와 학년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공격성 유형	양육태도	자율		통제		t
		N	$\bar{X}(SD)$	N	$\bar{X}(SD)$	
도발적물리형공격성	4학년	71	17.98(5.21)	86	18.73(5.38)	-0.88
	5학년	85	19.34(4.72)	77	19.66(4.87)	-0.43
	6학년	94	18.91(5.29)	59	19.64(4.67)	-0.87
잠재적물리형공격성	4학년	71	11.23(3.75)	84	12.15(4.27)	-1.40
	5학년	82	12.08(4.03)	74	12.82(4.48)	-1.08
	6학년	95	11.86(3.54)	59	12.79(3.66)	-1.57
폭발형 공격성	4학년	74	13.45(4.36)	93	14.10(4.32)	-0.96
	5학년	84	14.40(4.19)	75	15.13(4.53)	-1.05
	6학년	94	14.68(3.70)	61	14.78(4.19)	-0.17
언어적 공격성	4학년	70	12.38(4.28)	80	14.42(4.76)	-2.74 **
	5학년	81	13.80(4.34)	70	14.05(4.44)	-0.36
	6학년	91	13.53(3.93)	58	14.03(4.03)	-0.74
우회적 공격성	4학년	73	14.54(4.19)	89	15.41(4.69)	-1.23
	5학년	85	15.55(4.60)	74	16.51(4.72)	-1.30
	6학년	97	15.79(4.30)	58	16.96(4.66)	-1.59

(** : $p<.01$)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적 공격성만 4학년에서 자율 집단의 평균은 12.38, 통제 집단의 평균은 14.42로 유의미한 차이($t=-2.74$, $p<.01$)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2-2는 극히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가설2-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학년별에 따른 공격성 유형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7>과 같다.

<표 IV-7> 성취-비성취와 학년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공격성 유형	양육태도	성취		비성취		t
		N	$\bar{X}(SD)$	N	$\bar{X}(SD)$	
도발적물리형공격성	4학년	93	18.12(5.24)	69	18.34(5.03)	-0.27
	5학년	103	18.88(4.80)	74	20.41(4.55)	-2.14 *
	6학년	97	19.06(4.98)	81	19.19(4.86)	-0.18
잠재적물리형공격성	4학년	93	10.90(3.43)	71	12.45(4.81)	-2.40 *
	5학년	102	11.40(3.59)	70	13.45(4.53)	-3.31 **
	6학년	96	12.18(3.44)	84	12.71(4.11)	-0.93
폭발형 공격성	4학년	101	13.74(4.26)	71	13.98(4.58)	-0.36
	5학년	102	13.57(4.01)	72	15.87(4.37)	-3.58 **
	6학년	96	14.29(4.15)	81	15.00(4.74)	-1.06
언어적 공격성	4학년	95	12.95(4.40)	65	13.96(5.27)	-1.32
	5학년	99	13.30(3.99)	68	14.85(4.48)	-2.34 *
	6학년	96	14.05(3.94)	79	14.00(4.37)	0.08
우회적 공격성	4학년	98	14.21(3.45)	72	15.55(4.71)	-2.14 *
	5학년	103	15.23(4.56)	70	17.48(4.41)	-3.23 **
	6학년	95	16.00(4.15)	83	16.42(4.68)	-0.64

(* : $p<.05$, ** : $p<.01$)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은 5학년의 경우 성취집단의 평균은 18.88, 비성취 집단의 평균은 20.41로 유의미한 차이($t=-2.14, p<.05$)를 나타내고 있다.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은 4학년의 경우 성취 집단의 평균은 10.90, 비성취 집단의 평균은 12.45로 유의미한 차이($t=-2.40, p<.05$)를 나타내고 있으며, 5학년의 경우 성취 집단의 평균은 11.40, 비성취 집단의 평균은 13.45로 유의미한 차이($t=-3.31, p<.01$)를 나타내고 있다.

폭발형 공격성은 5학년의 경우 성취 집단의 평균은 13.57, 비성취 집단의 평균은 15.87로 유의미한 차이($t=-3.58, p<.01$)를 나타내고 있다.

언어적 공격성은 5학년에 있어서 성취 집단의 평균은 13.30, 비성취 집단의 평균은 14.85로 유의미한 차이($t=-2.34, p<.05$)를 나타내고 있다.

우회적 공격성은 4학년의 경우 성취 집단의 평균은 14.21, 비성취 집단의 평균은 15.55로 유의미한 차이($t=-2.14, p<.05$)를 나타내고 있으며, 5학년의 경우도 성취 집단의 평균은 15.23, 비성취 집단의 평균은 17.48로 유의미한 차이($t=-3.23, p<.01$)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2-3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가설2-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와 학년별에 따른 공격성 유형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8>과 같다.

<표 IV-8> 합리-비합리와 학년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공격성 유형	양육태도	합리		비합리		t
		N	$\bar{X}(SD)$	N	$\bar{X}(SD)$	
도발적물리형공격성	4학년	80	17.97(4.77)	79	18.87(5.49)	-1.10
	5학년	88	18.70(4.72)	97	20.59(4.41)	-2.82 **
	6학년	78	18.80(5.07)	93	19.89(4.46)	-1.49
잠재적물리형공격성	4학년	82	11.01(3.58)	80	12.40(4.35)	-2.22 *
	5학년	86	10.74(3.21)	90	13.65(4.43)	-4.97 **
	6학년	80	11.40(3.38)	93	13.27(3.94)	-3.33 **
폭발형 공격성	4학년	87	12.95(3.65)	81	14.83(4.82)	-2.87 **
	5학년	85	13.27(3.70)	93	16.11(4.46)	-4.61 **
	6학년	79	14.03(3.80)	95	15.67(4.51)	-2.55 *
언어적 공격성	4학년	80	12.27(4.42)	75	14.37(4.50)	-2.92 **
	5학년	84	12.50(3.50)	91	15.59(4.40)	-5.12 **
	6학년	76	13.07(3.89)	91	14.80(4.35)	-2.67 **
우회적 공격성	4학년	85	13.82(3.82)	82	15.70(4.40)	-2.95 **
	5학년	89	14.53(4.20)	93	17.40(4.57)	-4.40 **
	6학년	79	14.51(4.03)	92	16.66(4.61)	-1.71

(* : $p < .05$, ** : $p < .01$)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발적물리형 공격성은 5학년의 경우는 합리 집단의 평균은 18.70, 비합리 집단의 평균은 20.59로 유의미한 차이($t = -2.82$, $p < .01$)를 나타내고 있다.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은 4학년의 경우 합리 집단의 평균은 11.01, 비합리 집단의 평균은 12.40으로 의미있는 차이($t = -2.22$, $p < .05$)를 나타내고 있으며, 5학년의 경우 합리 집단의 평균은 10.74, 비합리 집단의 평균은 13.65로 유의미한 차이($t = -4.97$, $p < .01$)를 나타내고 있다. 6학년의 경우는 합리 집단의 평균은 11.40, 비합리 집단의 평균은 13.27로 유의미한 차이($t = -3.33$, $p < .01$)를 나타내고 있다.

폭발형 공격성은 4학년의 경우 합리 집단의 평균은 12.95, 비합리 집단

의 평균은 14.83으로 의미있는 차이($t=-2.87, p<.01$)를 나타내고 있으며, 5학년의 경우는 합리 집단의 평균은 13.27, 비합리 집단의 평균은 16.11로 유의미한 차이($t=-4.61, p<.01$)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6학년의 경우 합리 집단의 평균은 14.03, 비합리 집단의 평균은 15.67로 의미있는 차이($t=-2.55, p<.05$)를 나타내고 있다.

언어적 공격성은 4학년의 경우 합리 집단의 평균은 12.27, 비합리 집단의 평균은 14.37로 의미있는 차이($t=-2.92, p<.01$)를 나타내고 있으며, 5학년의 경우 합리 집단의 평균은 12.50, 비합리 집단의 평균은 15.59로 유의미한 차이($t=-5.12, p<.01$)를 나타내고 있다. 6학년의 경우 합리 집단의 평균은 13.07, 비합리 집단의 평균은 14.80으로 유의미한 차이($t=-2.67, p<.01$)를 나타내고 있다.

우회적 공격성은 6학년의 경우는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4학년의 경우 합리 집단의 평균은 13.82, 비합리 집단의 평균은 15.70으로 의미있는 차이($t=-2.95, p<.01$)를 나타내고 있다. 5학년의 경우 합리 집단의 평균은 14.53, 비합리 집단의 평균은 17.40으로 유의미한 차이($t=-4.40, p<.01$)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2-4는 거의 수용되었다.

3. 가설3 :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의 차이(지역별)

가설3-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지역별에 따른 공격성 유형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9>와 같다.

<표 IV-9> 애정-적대와 지역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공격성 유형	양육태도	애정		적대		t
		N	$\bar{X}(SD)$	N	$\bar{X}(SD)$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제 주 시	75	18.80(5.17)	89	17.82(5.15)	-1.21
	서귀포시	92	19.44(4.70)	70	19.52(5.20)	-0.11
	북제주군	57	19.84(4.49)	104	19.60(5.10)	0.29
	남제주군	73	17.79(4.87)	89	18.67(4.97)	-1.13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제 주 시	74	11.36(3.16)	87	12.16(3.65)	-1.46
	서귀포시	91	12.29(3.88)	74	12.93(4.68)	-0.95
	북제주군	58	12.51(3.88)	99	11.90(3.96)	0.94
	남제주군	74	10.56(3.57)	83	12.00(4.26)	-2.26 *
폭발형 공격성	제 주 시	74	13.70(3.43)	88	14.36(4.44)	-1.07
	서귀포시	91	14.50(4.21)	72	15.20(4.60)	-1.02
	북제주군	58	15.12(4.30)	105	14.68(4.51)	0.60
	남제주군	74	12.56(4.13)	91	14.61(4.33)	-3.08 **
언어적 공격성	제 주 시	72	13.15(3.84)	87	13.93(4.17)	-1.21
	서귀포시	92	13.75(4.20)	68	14.29(4.95)	-0.75
	북제주군	56	14.50(4.39)	96	13.93(4.32)	0.77
	남제주군	70	12.07(4.19)	84	13.36(4.23)	-1.90
우회적 공격성	제 주 시	74	13.98(3.74)	91	15.56(4.05)	-2.56 *
	서귀포시	92	15.50(4.26)	70	16.81(4.79)	-1.84
	북제주군	56	16.26(4.24)	106	16.35(4.77)	-0.12
	남제주군	76	13.92(3.69)	90	15.62(4.67)	-2.57 *

(* : $p < .05$, ** : $p < .01$)

<표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은 남제주군의 경우 애정집단의 평균은 10.56, 적대집단의 평균은 12.00으로 유의미한 차이($t = -2.26, p < .05$)를 나타내고 있으며, 폭발형 공격성은 남제주군의 경우 애정집단의 평균은 12.56, 적대집단의 평균은 14.61로 유의미한 차이

($t=-3.08$, $p<.01$)를 나타내고 있다.

우회적 공격성은 제주시의 경우 애정집단의 평균은 13.98, 적대집단의 평균은 15.56으로 의미있는 차이($t=-2.56$, $p<.05$)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제주군의 경우 애정집단의 평균은 13.92, 적대집단의 평균은 15.62로 유의한 차이($t=-2.57$, $p<.05$)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3-1은 극히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가설3-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지역별에 따른 공격성 유형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자율-통제와 지역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공격성 유형	양육태도	자율		통제		t
		N	$\bar{X}(SD)$	N	$\bar{X}(SD)$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제 주 시	65	18.27(4.99)	47	19.19(5.66)	0.09
	서귀포시	67	19.77(5.38)	58	19.77(4.98)	0.00
	북제주군	50	19.58(4.73)	65	19.75(5.06)	-0.19
	남제주군	68	17.75(5.00)	52	18.28(4.34)	-0.62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제 주 시	64	11.81(3.39)	46	12.30(4.17)	-0.68
	서귀포시	68	12.50(3.81)	59	13.40(5.11)	-1.14
	북제주군	50	12.22(3.85)	61	12.16(3.43)	0.08
	남제주군	66	10.59(3.81)	51	12.27(3.78)	-2.37 *
폭발형 공격성	제 주 시	66	13.72(3.45)	48	15.06(4.25)	-1.85
	서귀포시	67	14.97(4.12)	59	15.10(4.69)	-0.17
	북제주군	51	15.05(4.08)	67	14.43(4.50)	0.78
	남제주군	68	13.36(4.44)	55	13.96(3.92)	-0.78
언어적 공격성	제 주 시	62	13.14(3.85)	46	14.32(4.37)	-1.49
	서귀포시	68	13.80(4.14)	54	14.70(4.99)	-1.08
	북제주군	49	14.55(4.32)	57	14.17(4.24)	0.45
	남제주군	63	11.90(4.17)	51	13.54(4.14)	-2.10 *
우회적 공격성	제 주 시	66	14.40(3.31)	48	16.08(4.63)	-2.25 *
	서귀포시	69	16.15(4.61)	55	17.03(5.21)	-0.99
	북제주군	51	16.66(4.69)	64	16.51(4.90)	0.17
	남제주군	69	14.49(4.53)	54	15.03(3.86)	-0.70

(* : $p < .05$)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은 남제주군의 경우에만 자율집단의 평균은 10.59, 통제집단의 평균은 12.27로 유의미한 차이($t = -2.37, p < .05$)를 나타내고 있으며, 언어적 공격성도 남제주군의 경우에만 자율집단의 평균은 11.90, 통제집단의 평균은 13.54로 유의미한 차이($t = -2.10, p < .05$)를 나타내고 있다. 우회적 공격성은 제주시의 경우에만 자율집단의 평균은 14.40, 통제집단의 평균은 16.08로 유의미한 차이($t = -2.25, p < .05$)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3-2는 극히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가설3-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지역별에 따른 공격성 유형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성취-비성취와 지역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공격성 유형	양육태도	성취		비성취		t
		N	$\bar{X}(SD)$	N	$\bar{X}(SD)$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제 주 시	77	17.68(4.92)	49	18.26(4.92)	-0.64
	서귀포시	85	20.02(4.76)	46	18.63(4.59)	1.62
	북제주군	58	20.01(4.57)	75	20.10(5.17)	0.56
	남제주군	73	17.19(5.12)	54	19.85(4.45)	-3.05 **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제 주 시	76	11.28(2.96)	48	12.41(3.76)	-1.86
	서귀포시	89	12.44(3.80)	48	13.27(5.12)	-0.98
	북제주군	55	11.49(3.61)	73	13.04(4.15)	-2.21 *
	남제주군	71	10.54(3.40)	56	12.66(4.90)	-2.86 **
폭발형 공격성	제 주 시	79	13.40(3.62)	47	14.19(4.35)	-1.09
	서귀포시	87	14.65(4.35)	46	17.76(4.47)	-0.13
	북제주군	59	14.61(4.23)	75	15.69(4.77)	-1.37
	남제주군	74	12.82(4.10)	56	14.78(4.71)	-2.53 *
언어적 공격성	제 주 시	77	13.29(4.18)	47	14.04(3.83)	-0.99
	서귀포시	87	14.18(4.25)	45	14.37(5.05)	-0.23
	북제주군	55	13.83(3.86)	68	14.86(4.72)	-1.30
	남제주군	71	12.36(3.93)	52	13.57(5.05)	-1.49
우회적 공격성	제 주 시	77	14.27(3.75)	50	15.64(3.74)	-2.01 *
	서귀포시	86	15.84(4.13)	46	16.65(4.94)	-0.99
	북제주군	57	16.38(4.50)	75	17.29(4.72)	-1.11
	남제주군	76	14.28(3.92)	54	15.96(4.98)	-2.14 *

(* : p<.05)

<표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은 남제주군 지역에서만 성취집단의 평균은 17.19, 비성취집단의 평균은 19.85로 유의미한 차이($t=-3.05$, $p<.01$)를 나타내고 있다.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은 북제주군의 경우에 성취집단의 평균은 11.49, 비성취집단의 평균은 13.04로 유의미한 차이($t=-2.21$, $p<.05$)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제주군의 경우에도 성취집단의 평균은 10.54, 비성취집단의 평균은 12.66으로 유의미한 차이($t=-2.86$, $p<.01$)를 나타내고 있다.

폭발형 공격성은 남제주군의 경우에만 성취집단의 평균은 12.82, 비성취집단의 평균은 14.78로 유의미한 차이($t=-2.53$, $p<.05$)를 보이고 있으며, 언어적 공격성은 어느 지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우회적 공격성은 제주시의 경우 성취집단의 평균은 14.27, 비성취집단의 평균은 15.64로 유의한 차이($t=-2.01$, $p<.05$)를 나타내고 이으며, 남제주군의 경우 성취집단의 평균은 14.28, 비성취집단의 평균은 15.96으로 유의미한 차이($t=-2.14$, $p<.05$)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3-3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가설3-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와 지역별에 따른 공격성 유형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12>와 같다.

<표 IV-12> 합리-비합리와 지역별 공격성 유형의 차이

공격성 유형		양육태도		합리		비합리		t
		N	$\bar{X}(SD)$	N	$\bar{X}(SD)$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제주시	67	18.07(4.98)	65	19.03(5.02)	-1.10		
	서귀포시	64	19.39(5.02)	70	20.22(4.60)	-1.01		
	북제주군	46	19.00(4.36)	76	20.34(4.79)	-1.55		
	남제주군	69	17.75(4.79)	58	19.65(4.80)	-2.22 *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제주시	66	10.72(3.02)	64	12.92(3.53)	-3.81 **		
	서귀포시	66	12.03(3.88)	71	13.50(4.56)	-2.03 *		
	북제주군	46	11.45(3.15)	75	12.89(4.26)	-2.12 *		
	남제주군	70	10.14(3.15)	53	13.26(4.67)	-4.19 **		
폭발형 공격성	제주시	65	12.98(3.35)	64	15.35(4.23)	-3.54 **		
	서귀포시	66	14.09(4.10)	71	15.64(4.48)	-2.11 *		
	북제주군	48	14.27(3.61)	77	15.62(4.82)	-1.78		
	남제주군	72	12.56(3.59)	57	15.66(4.95)	-3.96 **		
언어적 공격성	제주시	65	12.47(4.15)	62	14.91(3.73)	-3.48 **		
	서귀포시	64	13.65(4.06)	68	14.67(4.89)	-1.30		
	북제주군	44	13.45(3.61)	74	15.01(4.58)	-1.93		
	남제주군	67	11.17(3.44)	53	15.28(4.43)	-5.71 **		
우회적 공격성	제주시	69	13.79(3.85)	64	15.96(3.76)	-3.28 **		
	서귀포시	65	15.13(4.31)	70	17.11(4.93)	-2.47 *		
	북제주군	46	15.67(4.18)	78	17.12(4.78)	-1.71		
	남제주군	73	14.21(3.81)	55	16.07(4.59)	-2.49 *		

(* : P<.05, ** : P<.01)

<표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은 남제주군 지역에서만 합리집단의 평균은 17.75,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9.65로 유의미한 차이($t=-2.22$, $p<.05$)를 나타내고 있다.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은 모든 지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주시 지역에서는 합리집단의 평균은 10.72,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2.92로 유의한 차이($t=-3.81$, $p<.01$)를 보이고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에서

는 합리집단의 평균은 12.03,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3.50으로 유의한 차이 ($t=-2.03, p<.05$)를 나타내고 있다. 북제주군 지역에서는 합리집단의 평균은 11.45,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2.89로 유의한 차이($t=-2.12, p<.05$)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제주군 지역에서는 합리집단의 평균은 10.14,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3.26으로 유의한 차이($t=-4.19, p<.01$)를 나타내고 있다.

폭발형 공격성은 제주시의 경우 합리집단의 평균은 12.98,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5.35로 유의한 차이($t=-3.54, p<.01$)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귀포시 경우에도 합리집단의 평균은 14.09,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5.64로 유의한 차이($t=-2.11, p<.05$)를 나타내고 있다.

언어적 공격성은 제주도 지역에서 합리집단의 평균은 12.47,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4.91로 유의한 차이($t=-3.48, p<.01$)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제주군 지역에서는 합리집단의 평균은 11.17,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5.28로 유의한 차이($t=-5.71, p<.01$)를 나타내고 있다.

우회적 공격성은 제주시의 경우 합리집단의 평균은 13.79,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5.96으로 유의한 차이($t=-3.28, p<.01$)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합리집단의 평균은 15.13,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7.11로 유의한 차이($t=-2.47, p<.05$)를 나타내고 있다. 남제주군 지역에서는 합리집단의 평균은 14.21, 비합리집단의 평균은 16.07로 유의한 차이($t=-2.49, p<.05$)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3-4는 거의 수용되었다.

V. 요약 ·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에는 성별, 학년별, 지역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제주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 72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처음에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지와 공격성 검사지를 한 묶음으로 하여 720부를 배부하였으나 편부 아동, 잘못 기재된 것, 누락된 것을 제외한 706부만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측정도구로서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 검사도구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검사지를 사용했고, 공격성 검사도구는 황정규(1964)의 욕구진단검사 중 공격욕구를 측정하는 12문항과 윤진란(1994)의 공격성 검사 6문항, 본 연구자가 제작한 12문항을 합하여 총 30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검증을 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첫째, 애정-적대적 지각의 경우 남아는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p < .05$ 수준에서, 우회적 공격성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아는 우회적 공격성에서만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자율-통제적 지각의 경우 여아는 공격성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남아는 언어적 공격성에서만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성취-비성취적 지각의 경우 남아는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아는 우회적 공격성에서만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합리-비합리적 지각의 경우 남아는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아에 있어서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은 $p < .05$ 수준에서,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은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의 학년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첫째, 애정-적대적 지각의 경우 4학년과 6학년은 공격성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5학년은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은 $p < .01$ 수준에서, 언어적 공격성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자율-통제적 지각의 경우 5, 6학년은 공격성 유형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4학년은 언어적 공격성에서만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성취-비성취적 지각의 경우 4학년은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과 우회적 공격성에서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5학년은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p < .05$ 수준에서,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고 있다. 6학년은 공격성 유형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넷째, 합리-비합리적 지각의 경우 4학년은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은 $p < .05$ 수준에서,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5학년은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에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6학년은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p < .01$ 수준에서, 폭발형 공격성은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간의 지역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첫째, 애정-적대적 지각의 경우 제주시 지역은 우회적 공격성에서만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제주군 지역은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은 $p < .05$ 수준에서, 폭발형 공격성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자율-통제적 지각의 경우 제주시는 우회적 공격성에서만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제주군은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은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지역은 공격성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성취-비성취적 지각의 경우 서귀포시는 공격성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제주시 지역은 우회적 공격성에서만 $P < .05$ 수준에서, 북제주군은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에서만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제주군은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은 $P < .01$ 수준에서, 폭발형 공격성과 우회적 공격성은 $P < .05$ 수준에

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합리-비합리적 지각의 경우 제주도 지역에서는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서귀포시는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북제주군은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에서만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제주군은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과 우회적 공격성은 $p < .05$ 수준에서,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는 어머니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고, 통제적으로 지각하면 언어적 공격성이 높다. 비성취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고,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다.

여아는 어머니를 적대적, 비성취적으로 지각하면 우회적 공격성이 높고,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다.

둘째, 4학년 아동들은 어머니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면 언어적 공격성이 높고, 비성취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다.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다.

5학년 아동들은 어머니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고, 비성취적,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다.

6학년 아동들은 어머니를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이 높다.

셋째, 제주시 아동들은 어머니를 적대적, 통제적, 비성취적으로 지각하면 우회적 공격성이 높고,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다.

서귀포시 아동들은 어머니를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다.

북제주군 아동들은 어머니를 비성취적,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이 높다.

남제주군 아동들은 어머니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고, 통제적으로 지각하면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이 높다. 비성취적으로 지각하면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고,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면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이 높다.

위의 연구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달리 요구된다.

남아, 여아 모두에게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요구되며 특히 남아는 어머니를 통제적으로 지각할 때 공격성이 높아짐을 볼 때에 남아에게는 자율적인 양육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학년별에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달리 요구된다. 4, 5, 6학년 아동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양육태도는 합리적 태도이다. 특히, 4학년

아동에게는 자율적, 성취적 양육태도가 필요하며, 5학년 아동에게는 애정적, 성취적 양육태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양육태도는 비합리임을 볼 때에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요구된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아동이 어머니를 적대적, 통제적, 비성취적으로 지각하면 공격성이 높음을 볼 때에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양육태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통계치는 알려주고 있다.

3.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측정방법을 질문지법뿐만 아니라 자연관찰법, 실험실 연구방법 등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는 측정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교육기관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현장에서도 자체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부모교실’을 통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가족 구성이 핵가족화, 소가족화 되면서 아버지 역할이 어머니 역할 못지 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미치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고은희(1997). 초등학교의 상담 실태 조사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1992). 공격영화 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무길(1980). 공격성 조절을 위한 상담모형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태(1984). 「발달심리학」 서울:법문사.
- 김효정(1991).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유아의 공격성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상인(198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양식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안녕(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덕규(1983).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공격성」 서울:배영사.
- 박창한(1992).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공격행동 유형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명자(1997). 「발달심리학」 서울:학지사.
- 송창윤(1987).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경(1989). 양육태도·성취동기 및 귀인성향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기선(1965). 아버지와 자녀관계 진단검사 요강, 서울:코리안 테스트센타.
- 오성심·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

- 성의 관계 연구 노트, 서울:행동과학연구소.
- 오영미(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완기(1993). 부모의 체벌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애(199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내외통제성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란(1994). 부모의 성격특성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상관,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섭 외(1987). 「유아 교육」, 서울 : 정민사.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중석(1992). 「10대의 정신병리」, 서울 : 대교출판사.
- 이현순(198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화(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우혜(1991). 아동의 공격성 행동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1975). 「인간과 교육」 서울:배영사.
- 최순영 외(1995). 「인간의 사회적·성격적 발달」, 서울:학지사.
-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상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응연 외(1993). 「발달심리학」 서울:배영사.

황정규(1971). 욕구진단 검사요강, 서울:코리안테스팅센터.

Ardrey, R.(1967). African genesis, New York : Dell.

Armentrout, J. Burger,A.(1972).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of Five grade Level" , Developmental Psychology.

Baldwin, A. L.(1955). Behavior and development in childhood. N.Y.:Holt Pinehart and Winston.

Bandura, A. & Walters, R. H., Adolescent Aggression(New York : Ronald).

————— (1973), Aggression : A Social learning anaiysis.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 , Aggression, (New York:Prentice-Mall, Inc.), Citedby D. Harra & R. Lamb, The Encyclopedic dictionary of Psychology(Mass: The MIP Press Cambridre).

—————, Ross, D., and Ross, S. A.(1963), Vicarious reinforcemant and imitative learning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Baron, R. A.,& Byrne, D.(1984).Social Psychology : Undrestanding human interaction. Boston:Allyn & Bacon.

Barrett, D. E.(1979), A naturalistic Study of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aggression. Merrill-Palmer Quarterly,25.

Becker, W. C.(1962). Relations of derived from parent-interview rating to behavior problems of five-year-olds. Child Development.

Berkowitz, L.(1962), Aggression :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 Mcgraw-Hill.California:Brooks / Cole.

————— (1965), The Concept of aggressive drive : Some additional

- consideration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2). Orlando, FL:Academic Press.
- (1974), Some determinations of impulsive aggression:Role of mediated association with reinforcement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
- Davitz, J.(1952), The effects of previous training on postfrustration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7.
- Delaney, E. J. Parental antecedents of Social aggression in young Children. In P.H. Mussen(EDS.), Carmicle'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II,(New York:John Wiley).
- Dodge, K. A.(1980),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lmutter(ED.). Minnesota Symposia in Psychology: Vol.18, Cognitive prospective in children's Soci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Hills-dole, NJ : Erlbaum.
-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 Dollard, J., Doob, L. W., Miller, N.E., Mowrer, O.H., & Sears, R.R.(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 Elder, G. H.(1962), Structural Variations in the child relationship Sociometry.
- Eron, L.D. et al.(1963), Social Class Parental Punishment for Aggression and Child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 Eron, L. D.(1982), Parent-Child interaction, television Violence,and aggression of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37.
- Feshbach, S.(1964). The Function of Aggression and Regulation of Aggressive drive, Psychological Review, 11.

- _____ (1970), The Function of Aggression and Regulation of Aggressive drive, Psychological Review, 11.
- Frodi, A., Macaulay, J., and Thome, P., R.(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 Geen, R. G.(1968), Effects of frustration attack, and prior training in aggressiveness up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 Hartup, W. W(1974). Aggression in childhood : Development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29.
- Herson, L. A., Berger, M. and Shaffer, D.(1978).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Book Supplement of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No. 1, (Oxford, pergamonpress).
- Hyde, J.S.(1984). How large are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A developmental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 Johnson, S. L.(1980). Social Psychology(New Jersey : Prentice-Mall, Inc. Englewood Cliffs.
- Kauffman, J.M.(1981),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Behavior disorders. Columbus A bell & Howell Company.
- Lorenz, K.(1966), On aggression. New York:Harcourt, Brace & World.
- Lovaos, O.(1961), Interaction between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32.
- Maccoby, E. E. & Jacklin, C.N.(1974), The Psychology of Differences. (Stanfor,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A re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51.
- Mccord, W.Mccord, J., and Howard, A.(1961). Familiar correlates of aggression in nondelinquent mal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 Mead, M.(1935). *Sex and temperament in three Primitive Societies*. New York : Morrow.
- Moss, H. A.(1967). Sex, age, and state as determinant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Merril–Palmer Quaterly*, 13.
- Mussen, D., Conger, J., Kagan, J.(1979). *Child Development & Personality*. New York:Harper Row.
- Roe, A. & Siegelman, M. C.(1963). A Parent–Child Relations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 Schaefer(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 Sears, R. R., Maccoby, E. E., and Levin, H.(1957), *Patterns of Child rearing* New York:Harper & Row.
- Shaffer, D. R.(1993), *Developmental Psychology : Childhood and Adolescence(3rdEd)*. California:Brooks / Cole.
- Shantz, D. W., & Voydanoff, D. A.(1973). Situational effects on retaliatory aggression at three age levels. *Child Development*, 44.
-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Y.,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Tiger, J.(1980), On the biological basis of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1.

Vasta, R., Haith, M.M., and Miller, S.A.(1992). Child Psychology:The modern Science.NEW York:John Wiley & Sons.

Watson, G. A.(1957). Some Personality differences in child related to strict or permissive parental discipline. Journal of Psychology.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attitude for bringing up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Jang, Ji-Soo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o, Myoung-K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attitude for bringing up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by the sex, the grade and the area. To this end I set up the hypothesis as follows.

Hypothesis 1. There would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attitude for bringing up that the children perceived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by the sex.

1-1. There would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affectionate-hostile attitude for bringing up that the children perceived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by the sex.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 1-2. There would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self-regulating-controlling attitude for bringing up that the children perceived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by the sex.
- 1-3. There would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achievement-non-achievement attitude for bringing up that the children perceived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by the sex.
- 1-4. There would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reasonable-unreasonable attitude for bringing up that the children perceived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by the sex.

Hypothesis 2. There would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attitude for bringing up that the children perceived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by the grade.

- 2-1. There would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affectionate-hostile attitude for bringing up that the children perceived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by the grade.
- 2-2. There would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self-regulating-controlling attitude for bringing up that the children perceived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by the grade.
- 2-3. There would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achievement-non-achievement attitude for bringing up

that the children perceived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by the grade.

2-4. There would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reasonable-unreasonable attitude for bringing up that the children perceived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by the grade.

Hypothesis 3. There would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attitude for bringing up that the children perceived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by the area.

3-1. There would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affectionate-hostile attitude for bringing up that the children perceived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by the area.

3-2. There would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self-regulating-controlling attitude for bringing up that the children perceived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by the area.

3-3. There would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achievement-non-achievement attitude for bringing up that the children perceived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by the area.

3-4. There would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reasonable-unreasonable attitude for bringing up that the children perceived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by the area.

In support of these hypothesis, I set up 720 children, who were 4th, 5th, and 6th grades at the elementary school in Che-ju do as the subject of the study and finally analyzed the questionnaires for 702 children. The data was computerized through utilizing the SPSS Program.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if the boy perceived that his mother was hostile, he would have the high potential physical type, verbal and roundabout propensity to attack and if perceived controlling, he would have the high verbal propensity to attack. If he perceived non-achievement, he would have the high potential physical type, explosive type, and roundabout propensity to attack and if perceived unreasonable, he would have the high potential physical type, explosive type, verbal and roundabout propensity to attack.

If the girl perceived her mother was hostile and non-achievement, she would have the high roundabout propensity to attack, and if perceived unreasonable, she would have the high provocative physical type, potential physical type, explosive type, verbal, and roundabout propensity to attack.

Second, if the 4th grade children perceived their mother was hostile, they would have the high verbal propensity to attack, and if perceived non-achievement, they would have the high potential physical type and roundabout propensity to attack. If perceived unreasonable, they would have the high potential physical type, explosive type, verbal, and roundabout propensity to attack.

If the 5th grade children perceived their mother was hostile, they

would have the high potential physical type, explosive type, verbal, and roundabout propensity to attack, and if perceived non-achievement, they would have the high provocative physical type, potential physical type, explosive type, verbal and roundabout propensity to attack. If perceived unreasonable, they would have the high provocative physical type, potential physical type, explosive type, verbal, and roundabout propensity to attack.

If the 6th grade children perceived their mother was unreasonable, they would have the high potential physical type, explosive type, and verbal propensity to attack.

Third, in the Cheju City, if the children perceived their mother was hostile, controlling, and non-achievement, they would have the high roundabout propensity to attack, and if perceived unreasonable, they would have the high potential physical type, explosive type, verbal, and roundabout propensity to attack.

In the Soguiipo City, if the children perceived their mother was unreasonable, they would have the high potential physical type, explosive type, and roundabout propensity to attack.

In the Buk-Cheju Kun, if the children perceived their mother was non-achievement and unreasonable, they would have the high potential physical type propensity to attack.

In the Nam-Cheju Kun, if the children perceived their mother was hostile, they would have the high potential physical type, explosive type, and roundabout propensity to attack, and if perceived controlling, they would have the high potential physical type and verbal propensity to attack. If perceived non-achievement, they would have the high

provocative physical type, potential physical type, explosive type, and roundabout propensity to attack and if perceived unreasonable, they would have the high provocative physical type, potential physical type, explosive type, verbal, and roundabout propensity to attack.

These results from the study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mother need to change their attitude for bringing up according to the sex of children.

Both boy and girl ask the affectionate, achievement and reasonable attitude. In especially, as the boy perceived his mother was controlling, they showed the high propensity to attack, the mother need to shift their attitude to self-regulating.

Second, the mother need to change their attitude for bringing up according to the grade of children. 4th, 5th, and 6th grade children all ask reasonable attitude. In especially, 4th grade children ask self-regulating and achievement attitude, and 5th grade children ask affectionate and achievement attitude.

Third, since the unreasonable attitude for bringing up influence to the propensity to attack of the children in the Cheju City, Soguiipo City, Buk-Cheju Kun, and Nam-Cheju Kun, the reasonable attitude is asked. In especially, according to the area, if the children perceived their mother was hostile, controlling, and non-achievement, they would have the high propensity to attack. So the mother have to shift their attitude to affectionate, self-regulating, and achievement attitude.

☞ 질 문 지 ☞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여러분의 행동이 부모님의 태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개의 질문지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평소 어머니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에는 옳은 답, 틀린 답이 따로 없으며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내용을 잘 읽은 후에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평소에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장지순 드림

☞ 개인적 사항 ☞

◆ 해당되는 곳에 ○표하거나 ()안에 적어 주십시오.

1. 사는 지역 : 제주시() 2. 성 별 : 남() 3. ()학년
서귀포시() 여()
북제주군()
남제주군()

☞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 태도 ☜

◆ 다음 글을 하나 하나 읽으면서 그 내용이 여러분이 평소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것과 비슷하거나 같다고 생각되면 “그렇다(1번)”에, 같지 않다고 생각되면 “아니다(2번)”에 ○표를 해주십시오.

	그 렇 다	아 니 다
1. 어머니는 나와 다정하게 자주 얘기를 한다.	1	2
2. 어머니는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물건까지도 전부 사다 주신다.	1	2
3. 어머니는 공부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주신다.	1	2
4. 어머니는 화가 날 때 식구들한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1	2
5. 내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면 어머니는 싫어하는 편이다.	1	2
6. 어머니는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1	2
7.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냐”하고 핀잔을 잘 주신다.	1	2
8. 어머니는 형제들을 야단치실 때 차별하는 일이 없다.	1	2
9. 어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오락회를 열거나 노래부르기를 좋아하신다.	1	2
10.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머니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 주신다.	1	2
11. 어머니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얘기하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하신다.	1	2
12. 어머니가 기분이 나쁠 때는 내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실 때가 많다.	1	2

	그렇 다	아니 다
13. 어머니는 내 말을 자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1	2
14. 어머니는 공부나 집안 일을 돕는 것 등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기신다.	1	2
15. 어머니는 내 능력이나 힘에 좀 벅찬 일이라도 나에게 해보라고 권장하시는 경우가 많다.	1	2
16. 어머니는 비록 어린이의 말이라도 이치에 맞는 말은 존중해 주시는 편이다.	1	2
17. 어머니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시다.	1	2
18. 어머니는 가끔 적당하지 못한 명령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일이 많다.	1	2
19. 어머니는 위인들의 훌륭한 업적이나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자주 들려 주신다.	1	2
20. 어머니는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도 내가 끈질기게 조르면 귀찮아서 하는 수 없이 허락해 버리신다.	1	2
21.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어머니는 우선 화부터 내시는 편이다.	1	2
22. 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할 때가 많다.	1	2
23. 어머니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하라고 자주 말씀 하신다.	1	2
24. 어머니는 내게 벌을 줄 때 대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1	2
25. 어머니는 나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1	2
26.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나에게 관한 일을 어머니는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1	2
27. 어머니는 하던 일은 끝까지 마쳐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1	2

		그렇 다	아니 다
28.	어머니는 기분이 좋을 때는 잘 해 주시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뚜렷한 이유없이 야단치시곤 한다.	1	2
29.	내가 질문을 하면 어머니는 아시는데 까지는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애쓰신다.	1	2
30.	어머니는 나의 일은 나 스스로 직접 결정하도록 맡겨 주는 편이다.	1	2
31.	내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생겨 그 일에 열중해 있으면 어머니는 엉뚱한 짓을 한다고 나무랄 때가 많다.	1	2
32.	손님이 오셨을 때와 보통 때에 어머니의 태도가 다를 때가 많다.	1	2
33.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어머니는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다.	1	2
34.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미리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2
35.	어머니는 새로운 일이나 여행은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신다.	1	2
36.	어머니는 잘못하게 된 원인은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꾸중할 때가 많다.	1	2
37.	어머니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거의 허락해 주시는 편이다.	1	2
38.	어머니는 나의 말과 행동에 별로 간섭하지 않는 편이다.	1	2
39.	어머니는 내가 여러 가지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신다.	1	2
40.	어머니는 내가 실수하여 일을 잘못했을 경우라도 꾸짖기 보다는 애썼다고 격려해 주시는 편이다.	1	2

공격성 검사

◆ 다음은 여러분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모아 놓았습니다. 내용을 잘 읽은 후에 ‘아주 그렇다’는 1에, ‘그런 편이다’는 2에, ‘그저 그렇다’는 3에, ‘그렇지 않다’는 4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5에 ○표해 주십시오.

	아주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수하고 만다.	1	2	3	4	5
2. 치고, 부수고, 때리는 것이 즐거리가 되어 있는 영화(비디오)를 좋아한다.	1	2	3	4	5
3.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괜히 못살게 굴고 싶어진다.	1	2	3	4	5
4.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나쁜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5.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1	2	3	4	5
6. 내가 손해 보았다고 생각되는 일은 꼭 복수해야만 속이 풀린다.	1	2	3	4	5
7. 살인사건이나 폭력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8. 나는 때때로 뚜렷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9. 이성(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을 보면 어쩐지 끌려주고 싶어진다.	1	2	3	4	5

	아주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 나는 화가 났을 때 가끔 문을 “팡”하고 닫는다.	1	2	3	4	5
11. 누가 먼저 나를 때린다면 나도 때리겠다.	1	2	3	4	5
12. 나는 가끔 나 자신이 폭발하려고 하는 화약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충동을 누를 수가 없다.	1	2	3	4	5
13. 나는 아무런 이유없이 친구를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다.	1	2	3	4	5
14. 나는 가끔 바보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놀려주고 싶다.	1	2	3	4	5
15. 나는 친구들이 잘못된 일을 선생님께 고자질한 적이 있다.	1	2	3	4	5
16. 나 또는 우리 가족을 깔보고 욕하는 사람과는 싸운다.	1	2	3	4	5
17. 나는 과격하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운동이러야 신이 난다.	1	2	3	4	5
18. 나는 친구들과 놀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가 먼저 싸울거리를 찾는다.	1	2	3	4	5
19. 남을 헐뜯고 나무라는 이야기는 언제나 신이 나서 듣는다.	1	2	3	4	5
20. 나는 몹시 화가 나서 책상을 ‘탕’하고 내리친 적이 있다.	1	2	3	4	5

	아주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1. 나는 나를 궁지(몹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한 사람을 알면 그 사람과 싸우겠다.	1	2	3	4	5
22. 나는 화가 나서 형제간 또는 친구들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심하게 싸워본 적이 있다.	1	2	3	4	5
23. 나는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누구에게나 주먹으로 한 대 쥐어박고 싶어진다.	1	2	3	4	5
24. 너무 뽐내는 사람은 골려주고 싶다.	1	2	3	4	5
25. 나는 화가 나면 동물(강아지, 고양이 등)을 발로 차거나 헛발질을 할 때가 있다.	1	2	3	4	5
26. 계속해서 나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사람은 얼굴을 때려주고 싶다.	1	2	3	4	5
27. 나는 조그만 일로 심하게 화를 내어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라고 후회해본 적이 있다.	1	2	3	4	5
28. 학급회의 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싸움을 걸고 싶어진다.	1	2	3	4	5
29. 남을 골려주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1	2	3	4	5
30. 나는 화가 나서 일부러 공책(책)을 찢거나 내던진 적이 있다.	1	2	3	4	5